

안산시의회 일본 대지진 참사와 피해에 따른 위로 결의문(안) 채택의견

의안 번호	2094
----------	------

발의연월일 : 2011. 3. 21.

발 의 자 : 김동규 의원 외 11인

1. 주 문

- 2011. 3.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진도 9.0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강진과 쓰나미가 후쿠시마를 비롯한 여러 지방을 강타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으로 일본 열도가 망연자실해 있는 실정으로
- 안산시의회는 이웃나라 일본이 자연 재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커다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은 물론 일본 국민과 정부에게 진정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해서 회복하기를 염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2. 제 안 이 유

- 이웃 나라 일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사망자 14만 2천명), 1995년 고베대지진(사망자 6,400명)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자연재해를 수도 없이 겪으며 살아왔다.
- 그러나 이번 동북부 해상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지진해일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세계 역대로도 5번째에 해당하는 강력하고도 큰 지진이다.

- 그 피해규모는 사망.실종자 수가 1만 9천명을 넘어섰다는 공식집계가 발표됐으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재민 44만 9천여 명, 건물 파괴 7만 3천여 채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의 자동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뒤집혀 있는가 하면 형체도 남지 않은 건물, 화재 등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장처럼 뒤바뀌어져 있는 실정으로 그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더구나 지진 발생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에서는 대피소와 병동에 서는 추위와 의료설비 부족, 쇼크 등으로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음식, 생수, 연료 등 생필품과 의료물자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원전 4기가 폭발하면서 핵분열을 우려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 생명이 위협 받는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더 멀리 벗어나기 위한 탈출 행렬이 계속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커다란 자연재해 앞에서도 일본 국민들이 보여준 차분함과 인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질서정연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큰 박수와 위로를 보내고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 일본 내에서도 피해가 적은 내륙의 마을과 도시에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음식지원과 자원봉사 등 아낌없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특히 점차 심각해져가는 핵 원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재앙을 막아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방사선 물질이 가득한 원전에 투입하겠다고 180명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 최후의 결사대로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 대지진 사태의 비극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현실 앞에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서도 애도와 위로 그리고 성금 모금과 물자지원 등을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던 위안부 할머니들도 “죄는 미워도 사람은 안미워요... 그저 빨리 힘내서 극복하라.”며 눈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일본을 위해 울고 있으며, 지구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까지 나서 일본사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안산시의회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희생되고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과 일본국민에게 인종과 국가, 역사를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으로 진정한 위로와 함께 하루 빨리 삶과 환경이 회복되고 후쿠시마 원전이 하루 빨리 복구되어 주민이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뜻이 현해탄을 건너 멀리 일본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안산시의회 일본 대지진 참사와 피해에 따른 위로 결의문(안)

지금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 후쿠시마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집도, 가족도, 삶도 모두 쓸려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날마다 늘어가는 피해 소식과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 확산 우려에 그 공포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물론 우리 정부와 학생, 사회단체, 종교계, 언론, 연예인 등 각계각층에서도 이웃나라 일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돕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이 같은 관심과 지원을 적극 지지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진정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동안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역사가 새로운 미래와 긴밀한 관계를 열어가는 비전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은 지구상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를 애도하고,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과 일본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원전이 하루 빨리 복구되어 안정을 되찾고, 힘을 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75만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희생자에 대하여 애도의 뜻을 전한다.

1. 안산시의회에서는 일본 대지진 참화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면서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결의한다.

1. 안산시의회에서는 일본 지진피해 돕기를 위한 각계각층의 지원 계획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불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3월 23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